

'87~'88년도 편수를 마치고



우 광 방

(前 편수위원장, 연세대학교수)

급변하는 사회에서 세월의 흐름은 유난히 빠르게 느껴지고 더우기 1987년 1월부터 2년간의 본학회 편수업무도 설새 없이 추진되어오면서 큰 과오없이 처리되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그간 노고를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특히 새로이 영문논문지, Journal of KIEE가 발간되면서 이 논문지 편수를 전담하여 주신 김충기 편수이사와, 수준높은 학술논문이 편수될수 있도록 치밀하고 구체화된 논문심사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주신 권옥현 편수이사께 감사드립니다.

학회지의 특집호 제작에 주력하였으며 동시에 수많은 논문의 심사와 관련업무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편수위원 여러분과 바쁘신중에도 언제나 철저한 논문심사로 논문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심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창의적이고 성의있게 편수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온 사무국 편수담당 두분 직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애당초 편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주로 전기공학분야의 기반분야를 주축으로 하면서 아울러 최근 회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공분야를 광범위하게 포용하

도록 편수전공분야를 확충하여 전기공학학술분야의 분류를 14개 전문분야로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학회지의 각 특집호 제목도 선정되었으며 87년에는 전기점등 100주년기념특집호, 학회창립 40주년 특집호를 비롯하여 7회의 특집호가 제작되었고, 88년에는 6회의 특집호와 6회의 소특집호가 편집되었으며(표1참조), 특집제목과 관련된 학술관련기사와 기술개발사례가 심도있게 처리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기술해설, 기술전망 그리고 기술동향등의 일반관심기사도 게재하도록 하여 특집내용과의 전체적 균형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논문지 논문 발표를 위하여 제출된 논문편수는 87년도에는 137편, 그리고 88년도에는 130편(Journal 게재를 위한 17편포함)등 총 267편이 접수되어 지난 86년도에 접수되었던 132편의 논문편수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최근 활발해진 학술활동때문에 보다 많은 논문이 접수될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본학회 회원의 논문이 타 관련 학회에 제출되는 사례도 많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증가가 어려웠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앞으로는 가능한한 본학회회원의 학술 연구논문을 본학회 논문지에 우선적으

표 1. '87~'88년도 학회지 특집 현황

구분	월별	특 집	편수
1987년도 8월 36권 V	4월	전기 점등 100주년기념	4편
	5월	보행로봇트	5편
	6월	전력통신시스템	6편
	7월	학회 창립 40주년기념	11편
	9월	전력전자	6편
	11월	전력계통	6편
	12월	회로 및 신호처리	5편
1988년도 8월 37권 V	2월	초전도	6편
	4월	공정정보 시스템	6편
	6월	전기공학과 에너지 절약	7편
	8월	마이크로 컴퓨터	6편
	10월	지중송전	8편
	12월	레이저공학과 전력산업	5편
	1월	특수전기기기(소특집)	5편
	3월	신소재(-)	3편
	5월	전력반도체 소자(-)	3편
	7월	극한기술(-)	5편
9월	바이오 칩(-)	1편	
11월	전기공학 교육(-)	3편	

표 2. 년도별 게재논문편수

분 야	'87년	'88년	합계
전력계통	10편	11편	21편
전기기기	9	14	23
전력전자	20	13	33
전기재료 및 반도체	28	27	55
방전및고전압	9	5	14
파동및양자전자	2	-	2
제어계측	25	23	48
로보틱스및자동화	1	7	8
컴퓨터 및 응용	1	6	7
통신시스템	-	1	1
회로및 신호처리	4	1	5
의용생체공학	1	-	1
Journal of KIEE	-	17	17
합 계	110편	135편	245편

로 발표하도록 검토해 주신다면 본학회의 학술활동도 보다 폭넓게 발전될것으로 기대하여 봅니다.

지난 2년간의 게재논문 분야별 분포(표2)에서 보시는 대로 20편이상의 논문이 발표된 분야는 전기재료 및 반도체(55편), 제어계측(48), 전력전자(33), 전기기기(23), 전력계통(21)등의 순이되며 2편이하가 되는 경우도 5개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논문편수가 작은 전공분야는 해당분야의 관련학회와 중첩이 되기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본학회 회원들의 학술활동과 관련된 해당분야의 연구회 구성과 아울러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면 수많은 연구논문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컴퓨터 및 응용 그리고 로보틱스 및 자동화분야의 발표논문편수가 증가하게 된 이유도 이러한 측면이 반영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동안 논문의 발표논문편수를 늘리도록 발표논문편수가 특히 저조한 분야를 선정하여 논문지 특집호등을 편수해 보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매우 아쉽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 발표논문편수가 계속 증가하게되면 수개의 전문분야를 통합한 별개의 논문지가 발간되든지 좀더 나아가서는 미국 전기학회의 전공분야별 Transactions의 체제를 갖춘 논문지가 발간 될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리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향상된 논문 뿐 아니라 양적으로도 훨씬 많은 논문이 회원들의 활발한 학술활동과 함께 발표되어야 할것입니다.

영문논문을 발간하면서 논문지 명칭을 여러모로 검토하였습니다. 본래 학회지와 논문지가 합본으로 발간되었을때 학회지의 영문제목이 Journal이었으나 이 명칭은 학술논문을 지칭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관례에 따라 현재의 학회지 영문 명칭을 Proceedings으로 바꾸고 영문 논문지명칭을 Journal로 하였습니다. Proceedings은 주로 학술대회발표논문을 수록하는 논문집에 쓰이며 동시에 기술해설이나 기술동향등의 기사를 특집하여 수록하는 경우 미국 전기학회의 Proceedings를 고려하여 학회지에 적용시켰습니다.

오래동안 사용되어온 명칭을 여러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이번 에 새로 발간된 영문지를 통하여 본 학회의 학술활동이 국외의 학술활동과 보다 효과적 교류가 형성되기를 고대합니다.

국제 표준 일련번호(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ISSN)가 본학회 학회지(ISSN 1013-0772),

논문지(0254-4172), Journal (1013-0780)에 부여되어 표지 상우측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의 사용으로 국제적으로 본학회 간행물이 용이하게 배포되어 도서관에서의 목록정리, 도서관간의 도서임대, 그리고 컴퓨터에 의한 문헌검색이 용이하게 되며 각간행물과 여기에 실린 각논문들을 지적하는데 용이하도록 되었습니다.

2년간의 임기중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업들이 많았다고 지적 됩니다. 특히 논문편수의 증가는 회원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로 생각되며 아울러 지난 임기동안에 베풀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편집업무를 맡게 되신, 활기차고 구상이 충만한 편집이사진의 건투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